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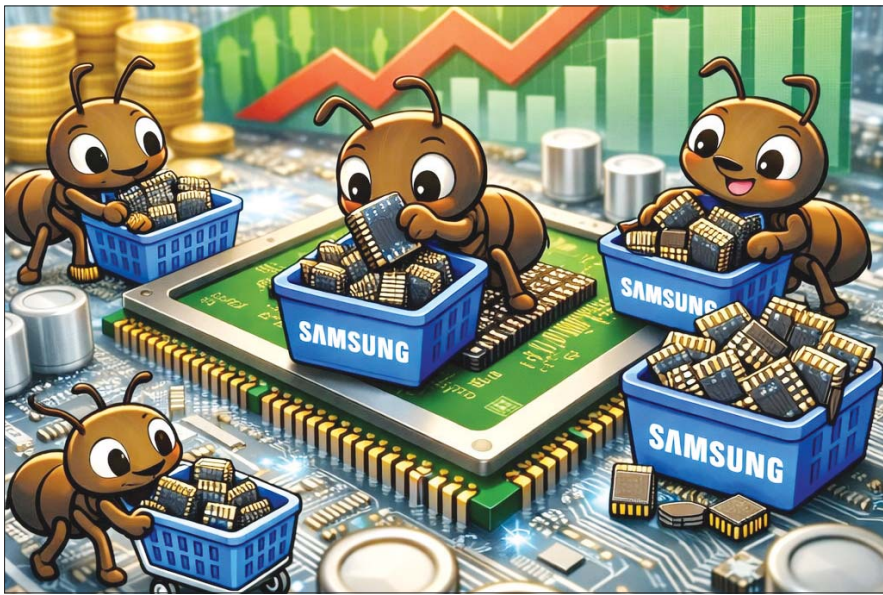
“빛내서 삼성전자 주식 산다”… 빗투·투자자예탁금 최고조

신용융자 잔액 28.3조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신용잔고 금액 1.9조 기록
SK하이닉스 대차잔액 12조 돌파
월급 제자리에 주식·부동산 ‘눈길’

“월급 빼곤 집값도 주식도 다 올랐어요. 노동가치가 떨어지는 거 같아 회사 일보다 주식 투자에 집중하게 돼요”

20대 회사원인 이태연(29) 씨 얘기다. 그는 지난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 1억2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년여 사이 30%의 수익을 손에 쥐었다. 그는 “투자로 돈을 벌어보니 예전만큼 업무에 몰두하기 어렵다”며 “요즘은 주식뿐 아니라 미국 국채를 비롯해 금·구리 등 원자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신용거래용자도를 알아 보는 중이다.

월급보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으로 눈을 돌리는 개미가 늘고 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동시에 들썩이면서 ‘빗투(빚내서 투자)’가 한파를 녹일 만큼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는 개미(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28조349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융자란 증권사 고객이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반도체 종목에도 빗투가 몰렸다. 9일 기준 삼성전자 신용잔고 금액은 1조99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 금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8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하루에만 1755억원이 유입됐다.

대차거래 잔액도 급증했다. 지난 9일 기준 삼성전자의 대차잔액은 13조741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SK하이닉스도 12조원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대차잔고 증가는 향후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물량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가 조정예에 베풀려는 대기 자금도 최대 수준으로 쌓였음을 보여준다.

월급보다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소득으로 눈을 돌리는 개미들이 늘고 있다. 자산 가격은 급등하는 데 예·적금 등으로 월급만 모아선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다.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평균가격은 ㎡당 1649만원으로, 2015년 같은 달(644만원)보다 2.5배 상승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5431만원으로, 10년 새 3000만원 이상 뛰었다.

반면 근로소득은 거북이걸음이다.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8월 기준 320만원으로, 10년 전(230만원)보다

3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회사원 김대관(28) 씨는 월급의 70~80%는 증권계좌에 넣는다. 김 씨는 “평생직장이란 건 없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며 “우선은 월급 이외에 주식으로 매달 50만원씩 월세 낼 만큼 버는 게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시중 뭉치돈도 증시 주변을 맴돈다. 지난 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8조8720억원에 달한다. 지난 8일에는 사상 첫 90조원(92조8537억원)을 돌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주식투자 열기의 가능성 역할을 한다.

개미들의 빗투 행렬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불안감과 조바심이 깔려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시장 중심으로 대출받아 주식 사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증시가 크게 조정받으면 자산기반이 취약한 젊은 층의 타격이 클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證, ‘스페이스X’ 업고 신고가 행진

스페이스X, xAI 등에 약 1조 투자
향후 투자자산 평가이익 반영 본격화
XOVR, 우주 ETF 등 대안투자 관심 ↑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관련주인 미래에셋증권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12일 미래에셋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5.72%(15500원) 오른 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3만4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스페이스X와 xAI 등 비상장 유니콘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은 2022년부터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에 투입된 그룹 자금을 약 4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X(옛 트위터) 인수 자금과 xAI 투자까지 더하면 머스크 생태계에 묶인 규모는 1조원에 근접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나증권은 향후 스페이스X를 비롯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메가 로켓) 스타십이 지난해 10월 13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시 기지에서 11번째 시험 발사되고 있다. /AP, 뉴시스

한 투자자산의 평가 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2만6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올렸다.

고연수 연구원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목적 자산은 약 10조원으로, 향후 스페이스X를 비롯한 비상장 투자 자산의 평가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1조6000억원,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스페이스X의 경우 4분기 중 새로운 투자 라운드가 클로징(마감)되지 않아 관련 평가이익은 올해 연중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8000억달러 기업가치 기준으로는 향후 약 6000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대안 투자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중 하나가 미국 상장 ETF인 ER셰어스 프라이빗·퍼블릭 크로스오버 ETF(XOVR)다. XOVR은 스페이스X 비중을 지난해 말 2%대에서 이달 10%까지 늘렸다. 엔비디아와 메타 비중보다 크다.

국내에서는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 PLUS 우주항공&UAM ETF, TIGER K방산&우주 ETF 등이 최근 한 달 30~5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KODEX ETF’, 순자산 120조

국내증시 회복·연금투자 수요 영향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가 순자산 12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ETF의 순자산총액은 9일 기준 120조53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ETF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86일 만에 20조원 이상이 추가로 유입됐다. 하루 평균 2300억원 이상이 순유입된 셈이다.

이번 성장은 특정 상품군에 대한 몰림이 아니라 폭넓은 상품군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100조원 돌파 이후 순자산이 1조원 이상 늘어난

상품은 7개, 1000억원 이상 증가한 상품은 44개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파생형, 인컴형 상품이 동시에 몸집을 키우며 KODEX 전체 자산을 끌어올렸다.

자금 유입의 중심에는 국내 증시 회복과 연금 투자 수요가 맞물린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10조 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고, 해외 주식형 ETF도 4조 4000억원 늘었다. 배당과 인컴 수요가 집중된 커버드콜 ETF 역시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대표지수 ETF로의 몰림이 두드러졌다. KODEX 200에는 2조

4000억원이 유입됐고, KODEX 200TR도 1조 2000억원 늘었다. KODEX 200 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 역시 9000억원이 추가되며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모았다. 해외 주식형에서는 KODEX 미국S&P500이 1조 7000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이 1조 4000억원 증가하며 글로벌 대표지수 ETF가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지난해 10월 ETF 순자산 100조원 돌파 이후 추가로 20조원이 쌓이는 과정에는 코스피 5000을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응원이 있었다”며 “KODEX ETF를 통해 투자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과 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한양證 “중대형 증권사로 성장해 나갈 것”

김병철 부회장 ‘타운홀 미팅’

“전문성을 갖춘 프로페셔널 조직을 지향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중대형 증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

한양증권은 지난 6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LIVE 타운홀 미팅 ‘2026 : The Next Chapter’를 현장과 자사 유튜브 동시 송출을 통해 진행하고, 회사의 성과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병철 한양증권 부회장은 이같이 밝히며 2025년 하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향한 전략적 방향성과 조직 운영 철학을 설명했다.

대주주 변경 후 조직 전반 안정제도 사업구조 재정비·중장기 경쟁력 강화 리테일 부문 구조적 개선 등 중점과제



지난 6일 김병철 한양증권 부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함께 최고경영자(CEO) LIVE 타운홀 미팅 ‘2026 : The Next Chapter’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증권

다. IB 부문 역시 ECM(주식금융)과 DCM(채권금융) 영역에서 강점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한편, 글로벌 IB 등 신규 영역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중점 과제로는 리테일 부문의 구조적 개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리테일 사업 모델을 온라인과 자산관리(WM) 중심으로 재편하고, RP·펀드·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 개편 역시 주요 과제로, 국내 주식 매매 중심 구조에서 금융상품과 거래 편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주식 대차 중개 등 신규 사업에도 순차적으로 진입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업 진출을 위한 인가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연간 세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준비된 중대형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부 통제와 시스템 정비, 리스크 관리 역량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